

“선농불교 정신 이어 불교경제 일으켜야”

마성 스님, <대각사상> 논문서 ‘용성 스님의 선농불교’ 재조명

역불승유의 조선대를 거친 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사찰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이 당시 조선불교를 되살리는 길은 오직 납자들이 자급자족하며 수행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 선농불교를 통해 불교 자립을 꿈꾼 이가 있었다. 바로 용성 스님이다.

마성 스님은 최근 <대각사상> 23집에서 ‘백용성의 선농불교에 대한 재조명’ 논문을 통해 용성 스님이 선농불교를 경제영역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마성 스님에 따르면 당시 불교계의 화두는 생존을 위한 자급자족이었다. 마성 스님은 “김만웅은 <불교> 제60호지에 기고한 ‘불교청년들이 농공업에서 부처를 찾아라’는 글에서 승려도 농공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석연애와 백학명도 선농불교 전통을 살리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마성 스님은 이런 선농불교와 용성 스님의 선농불교의 차이점을 사찰경제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게 까지 생계지원에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간 데서 찾았다.

마성 스님은 “용성 스님의 선농불교는 대각교와 뿔 수 없는 관계였다. 선농불교는

대각교 출범과 동시에 실천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예로 대각교 설립 이전인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용성 스님이 함경남도 북청에서 금광사업을 진행한 것을 들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은 포교자금 마련을 위해 금광사업에 뛰어들었다. 3년만에 사업경험 부족으로 실패하지만 이는 스님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그

용성 스님의 농공업 사업 연구 “현대사회서도 자급책 마련해야” 저리대부업·농산물 판매 등 제시

런 의미에서 대각교 출범과 동시에 화교원을 설립하고 용정에 대각교 지부를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성 스님은 용성 스님이 승려가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것은 계율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앞서 백학명 스님의 경우도 선농불교를 강조하며 그 위치를 선원에 한정할 것도 이러한 계율로서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성 스님은 “용성 스님은 불교계 공장 과 농장에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제하고, 또 불교도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런 사상은 당시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마성 스님은 이어 “간도 용정에 세워진 대각교회는 사찰 뿐만 아니라 선농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동포들의 생활터전이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독립운동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 스님은 선농불교의 영역을 확장한 용성 스님과 같이 오늘날 불교계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성 스님은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존하는 경제행위라면 모두 선농불교에 해당한다”며 “시골 사찰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거나 된장·간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불교계의 자급자족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부파불교시대 사찰에서 저급리 대부를 실시하고 고려시대에도 불교계는 이자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사례를 본받아 신도회비 등을 모아 저급리로 대부해 이자를 거둬 불우이웃 돕거나 장학금 지급, 승려의 노후복지금 활용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사지문화재 훼손 심각... 보존 대책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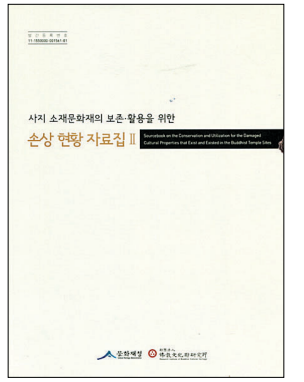
불교문화재연구원, 사지 문화재 손상 현황 자료집 펴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7월 30일 문화재청과 진행한 ‘사지(寺址, 절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절터에 있는 불교 문화재를 정리한 ‘사지 소재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손상 현황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세종 2개소, 대전 2개소, 충남 12개소, 충북 14개소의 사지에 있는 손상이 진행 중인 문화재, 도난 우려가 있는 문화재,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 문화재별 소재지와 좌표, 면적, 지정 여부, 소유자, 규제 정보,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사지 소재 문화재는 대부분이 보호받지 못해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문화재자료인 논산 수락리사지 마애불은 신체 윤곽을 따라 이끼가 자랐으며, 당진 채운동사지 석탑과 석등 석재를 비롯해 음성 중동리사지 석탑 기반석과 옥개석 등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가 진행될 때만 몽산리사지 석가여래좌상 등도 얼굴과 무릎 부분이 시멘트로 덮여 있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노덕현 기자



자료집에는 충청권 사지 소재 문화재의 보존 관리 현황 보고서도 부록으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충청권에 있는 사지 소재 문화재 중 1천300여점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고, 200여점이 망실됐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원 측은 “사지 소재 문화재는 대부분 비지정 문화재여서 학술적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다”며 “손상과 보존 상태에 따른 등급 분류를 실시해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와 사회통합’ 불자교수 논의

교불련, 8월 17~18일 서울 진관사서 교수불자대회

조계종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는 8월 17~18일 서울 진관사에서 ‘불교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석구 전 사회통합위원장과의 기조강연에 이어 ‘불교와 사회관계’ ‘사회갈등과 불교’ ‘삶, 화정, 그리고 불교사회’ 등 3개 주제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교수불자대회에서는 ‘대학교 불교 동아리 활성화 방안’과 ‘미래한국사회에서

의 불교역할을 주제로 2개의 특별회의가 진행된다. 각각 정태권 교수와 황진수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시민사회로 들어선 오늘날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상당 부분 진전되었으나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화합은 불교교단에서 가장 중시하는 조직 원리이자 실천덕목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불교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삼았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가치 살펴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23집서 다루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구탁)는 <정토학연구> 제23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생전예수재’를 특집 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이 편성됐다.

△이성운 동국대 겸임교수의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의 ‘생전예수재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성정환 동국대 연구교수의 ‘조계사 생전예수재의 역사와 의의’ 등

논문이 실렸다. 기고 논문으로는 △윤소희 박사의 ‘법패의 위격과 율조 변화’ △서길준 전 서경대 교수의 ‘관정의 정토선 수행법에 관한 연구’ △심상현 동방문화대 교수의 ‘영산재의 효율적 전승과 관객과의 원활한 소통에 관한 연구’ △김성욱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의 ‘공명조(共命鳥)에 대한 관념의 기원과 변천’ 등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 재산을 소비하지 말고 공장이나 농촌을 건설해 불교 신자들을 도우면 자연히 불교가 흥할 것이니...”

1932년 <불교> 中



韓 고려대장경연구 日 동경대 대장경연구 협약

불교 연구의 저본인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을 보다 쉽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이지범)와 동경대 대장경텍스트데이터베이스연구회(대표 마사히로 시모다, 동경대 교수)는 8월 3일 서울 인사동 평화방사랑방에서 ‘대장경 DB의 연구와 활용을 위한 한·일 연구기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의 협약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보유한 ‘재조 팔만대장경’ DB와 대장경텍스트데이터베이스연구회의 ‘다이쇼신수대장경’

DB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개발된 양기관의 전산화 시스템에 포함시키며 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대조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대장경 이미지 파일도 두 시스템에 연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영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등의 협력 관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는 이번 양 기관의 협약으로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장경 기반 지식 제공서비스 활성화

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2016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교환 및 호환성 협의 등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진행되며, 2017년 웹서비스 방식결정 및 중간보고, 2018년 까지 웹서비스 체계 확정 및 최종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대장경학회 설립도 추진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경우 현재 고려 재조 팔만대장경 81,258판과 고려 초조대장경 49,472판, 중국 돈황문헌 5종, 화엄석경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고려 교장문헌(속장경) 조사 및 이미지촬영이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 이미 중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과 연계해 대장경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사항 종림 스님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장경 전산화가 활용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밝혔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연구소의 지난 20년은 대장경을 전산화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1기였다. 오늘 협약 이후 각국, 각 기관의 자료를 서로 연결하

고 통합하는 2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검색의 시대’에 대장경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히로 시모다 동경대 교수도 “불교가 학문으로 자리잡고 서구사회에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근현대 학자들의 불교학연구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계의 학자들이 연구에 활용하는 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을 전산화해 미래불교의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현재 고려대장경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웹으로 공개하는 것은 연구소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10%에 불과하다”며 “일본 측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연구소가 가진 DB를 활용하여, 불교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을 비롯해 불교문화사업단 진화 스님,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 최충남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동경대 측이 개발한 신수대장경 검색시스템



종림 스님과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항목	출발	항목
인도 11일	출발일 : 11월2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10월20일 요금문의
부탄/네팔 8일	출발일 : 12월10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혜호	6일	출발일 : 9월5일, 10월17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 12월1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혜호2박(컬로/벤피야동굴)	7일	출발일 : 11월14일, 12월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한시출발

선불 선량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혜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혜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혜호/벤피야 7일
- 양곤/바간/혜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룸비나-스라바스티-산키야-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일부비라-칸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칸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미탈레-칸디-콜롬보-뭉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스라바스티-룸비나-카트만두-나기르코트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양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베트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정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키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키투만두-나기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천-머얼강-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미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펜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하론히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